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푸른 숲
-------	------

동화 본문

어느 옛날 마을에 이장이 있었어요.

이장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데 열중이었죠. 사람들은 이장을 싫어했으며, 모두가 이장이 없어지기만을 바랐답니다.

뜨거운 여름날, 마을에는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나그네는 많이 지쳐 보였으며, 음식과 물을 얻으러 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모습이 불쌍하여 조금 조금씩 음식과 물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 나그네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한편에 있는 나무에 앉아 음식과 물을 마시는 나그네에게 이장이 다가왔어요.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저 멀리 푸른 숲이 있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푸른 숲이라는 말에 이장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푸른 숲에서 나오는 나무는 마을에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른 숲의 나무를 파는 상인이 아닌 이상 푸른 숲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상인들도 푸른 숲의 위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기에 아무도 푸른 숲이 어디 있는지 몰랐답니다.

“아니?! 푸른 숲에서 왔는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푸른 숲에서 온 것을 확인한 이장은 나그네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 배가 고프지 않은가?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네.”

“아닙니다, 충분히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받았으니, 호의는 감사하지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거절에 이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환심을 사서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어 자신이 직접 거기 나무를 팔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잠은 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집으로 오면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네”

이장의 제안을 나그네는 또다시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날씨가 춥지 않아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아 자고 가도 됩니다, 제가 내일 일찍 마을로 돌아가야 해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나그네의 완곡한 거절에 부자는 낙담하였지만, 마을로 돌아간다는 말에 다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그네를 따라가면 푸른 숲으로 갈 수 있겠지? 내일 아침 일찍 나그네를 따라가야겠군’

이장은 자기 마음을 감추고 나그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여보! 내가 방금 푸른 숲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는데 내일 마을로 돌아간다고 하는구먼!”

“어머! 정말 푸른 숲에서 온 나그네가 맞나요?”

“그렇다니깐! 내가 내일 몰래 나그네를 따라가서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 거기 있는 나무를 모두 팔아 버리겠어! 그럼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이장은 내일 푸른 숲으로 가기 위해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마을이 멀 수도 있으니 챙겨야 할 게 많을 것 같군!”

먼저 이장은 나그네를 따라다니며 음식과 물, 잠자리를 구할 보석과 자기가 마을의 이장이라는 명패, 그리고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이 밝자 이장은 나그네가 머물던 나무로 갔어요. 때마침 일어난 듯한 나그네는 자리를 정리하고는 짐을 챙겨 길을 나서기 시작했죠.

이장은 나그네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이 곧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날은 더웠고 나그네의 발걸음은 빨랐죠, 더군다나 무거운 보석을 지고 있는 탓에 이장은 나그네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장은 자기 등의 보따리에서 그나마 값이 싼 보석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보석들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푸른 숲의 나무를 팔면 이런 보석들이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장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은 보석들을 버렸어요.

“아름다운 보석들이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워서 갈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다오” 혼자 눈물을 흘리고 보석을 버리며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작은 보석들을 하나 둘씩 버리다 보니 어느새 보따리가 가벼워지고 큰 보석 몇 개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그네를 조용히 따라가다보니 금세 날이 어두워졌어요.

나그네는 가는 길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다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잘준비를 하었어요.

이장은 자신도 근처에서 잠을 자려다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잠을 못잘 것 같아 마을에 있는 제일 큰집의 대문을 두드렸어요.

“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이장의 부름에 큰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에헴, 나는 옆 마을 이장입니다, 잠시 어디를 가던 중 날이 어두워져 여기서 하루 묵으려 하니 방을 내어 주시오!”

이장의 태도에 집주인은 기분이 나빴어요, 더군다나 이장의 모습은 험한 산길을 걸어온 탓에 거지꼴이 되어 있었죠.

“당신이 이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죠?!”

집주인의 말에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가진 명패를 꺼내들었어요.

“이 명패를 보면 내가 이장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장의 명패를 본 집주인은 되려 코웃음을 쳤어요.

“흥, 당신 행색을 보시오, 온통 땀범벅에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명패가 진짜지 가짜지 어떻게 알

아요?”

집주인의 말에 화가 난 이장은 큰소리를 쳤어요.

“아니! 이것보시오 난 이렇게 보석도 있고 정말 이장이란 말이오!”

이장이 꺼내든 보석을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집주인은 이내 다시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 보석을 훔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되겠네, 당신을 관아에 신고하겠어요.”

점점 자신을 이장이 아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집주인을 보며 이장은 더 이상 소란을 피웠다가는 나그네에게 자신이 뒤쫓는 사실을 걸릴 것 같아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됐소,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서 나가겠소.”

그렇게 자리를 벗어나려는 이장을 집주인이 붙잡았어요.

“당신이 도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죠, 관아에 신고해 당신을 잡아 넘길거예요.”

관아에 신고한다는 말에 이장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난 정말 도둑이 아니오! 이장이란 말이오!”

하지만 집주인은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고는 이장에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이장이든 뭐든 난 당신이 도둑같은데, 만약 그 보석을 준다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보내 드리겠어요.”

이장은 화가 났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보석을 주고는 나그네가 자고 있는 나무 근처로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보석도 잃고 쓸모없어진 명패를 보며 이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푸른 숲에만 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었기에 이장은 눈물을 닦고 나그네쪽을 쳐다보며 밤을 보냈답니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다시 길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날씨는 더웠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진 이장은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에 몸이 지칠대로 지쳤어요.

“헉헉...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구만.”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이장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나그네를 따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였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이장에게로 다가왔어요. 이장은 나그네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풀숲에 몸을 숨겼죠.

“이장님! 이장님 어디계십니까?”

어느덧 자신이 숨은 풀숲 근처까지 온 나그네의 외침에 이장은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이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 걸려버린걸까?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안거지?

이장은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얻어 마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흠.. 분명 이 근처에서 이장님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장을 찾지 못한 나그네가 가던 길을 가려할 때 이장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 여기 있소!”

이장의 외침에 나그네는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거친 산길을 지나온 탓에 거지꼴을 하며 온 몸은 땀범벅이 된 모습이 보였죠.

“이장님! 여기서 또 뵙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지금 내가 정말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것과 물을 좀 나눠줄 수 있으시오?”

나그네의 인사도 받아주지 못한채 이장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기 위한 음식을 구걸하였어요.

그런 모습에 나그네는 웃으며 음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어딜 가시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시며 가십니까?”

나그네의 물음에 이장은 차마 나그네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 멀리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였다네, 길이 너무 험해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나그네가 준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한 이장은 나그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하하, 아닙니다. 저도 이장님네 마을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는 걸요, 제가 이장님을 도와드리는데 당연한 거죠!”

나그네의 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신은 나그네를 따라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어 부자가 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아닌 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선행을 배푸는 모습에 이장은 감동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닐세,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지 내가 도와준게 아니지 않은가, 나중에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온다면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대접하겠네”

“아닙니다, 적당한 물과 음식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이장님께서서는 목적지까지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음...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네, 난 여기 좀 더 쉬다가 갈테니 자네는 먼저 가게나,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네”

“알겠습니다. 산속은 위험하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보며 이장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그네를 따라간다면 언제쯤 푸른 숲에 도착할 지도 모르는 것이며, 더 이상 따라갈 힘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했기 때문이었죠.

나그네의 모습이 안보일 때까지 고민을 하던 이장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나그네가 가던 길을 따라갔어요. 여전히 자신이 한 고생의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장은 몇날며칠을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그때마다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얻어먹으며 버티며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이미 날짜가 얼마나 흘렀는지도 까마득해질 무렵 어느새 나그네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걸음을 멈춘 나그네의 뒤로 높고 튼튼한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었죠. 이때까지 이장이 살면서 본 숲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누가봐도 푸른 숲의 모습이었다.

이장은 드디어 푸른 숲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푸른 숲을 바라보던 이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진 것들을 버려가며 푸른 숲에 왔지만 이런 초라한 모습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푸른 숲의 모습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나는 어찌 나무 한 그루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이장은 걸음을 멈춘채 푸른 숲을 보고 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갔어요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장의 모습에 나그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이장님이 여기 어떤일이십니까?”

놀란 모습으로 물어보는 나그네에게 이장은 말했어요.

“사실 난 자네가 푸른 숲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푸른 숲의 위치를 알기 위해 자네를 몰래 따라왔다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숲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이장은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나그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마을사람들을 괴롭히며 재산과 명예를 지켜왔었네, 근데 자네를 따라와 이렇게 푸른 숲을 보니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다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될 내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지냈으니 그 죄책감이 말할 수 없이 크구만”

이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난 다시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네, 물론 푸른 숲의 위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가 배풀어준 친절에 정말 감사하고, 그 친절을 이용한 나를 부디 용서해 주길 바라네”

그렇게 나그네에게 말을 건내며 돌아서는 이장에게 나그네는 말했어요

“이장님, 저는 사실 이장님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마을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모습이 마을에 계실 때 보다 더 초라했지만 많은 것을 버려가며 저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이장님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모른척하며 마을로 왔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말을 들은 이장은 확실히 자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많은 보석도 이장이라는 명패도 없어졌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도 낡아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었죠.

“그렇구먼, 자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데 돈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가는 길에 방해만 되었지, 그리고 이런 행색에도 나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며 친절을 베풀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힘든 길을 극복할 수 있었다네”

이장의 말에 나그네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이장님께서 푸른 숲에서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어가시는 것 같군요”

그런 나그네의 말에 이장은 똑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구먼, 난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겠네, 자네 덕분에 소중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 정말 고맙네”
그렇게 이장은 나그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향했다, 또 다시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이장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또 다시 몇 날 며칠이 지나 이장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였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도 있지만 행색이 거지꼴이 되버린 이장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장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모아둔 돈을 다 쓰고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이장의 목소리를 들은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이장을 바라봤어요. 온갖 고생을 한 이장을 모습을 보자마자 부인은 울면서 이장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돌아 와서 너무 고마워요”

자신의 품에 안겨 우는 부인을 달래주며 이장은 자신이 푸른 숲을 가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 푸른 숲을 보며 나그네와 했던 이야기, 다시 돌아오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장은 말했죠.

“여보,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며 지내겠소,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위해 살지 않겠소” 이장의 말에 부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도 당신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이장 부부는 다음 날부터 자신들이 괴롭혔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봉사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마을은 이장 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숲도 더 웅장해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이런 마을에서 나오는 나무나 광석들은 다른 마을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있었어요.

마을에 또다시 마을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나그네는 집마다 음식과 물을 얻으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일을 하는 이장 부부의 모습을 보았죠.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며 혼자서 말했어요.

“하하. 이젠 여기가 푸른 숲이군요. 이장님”